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, 물부족 농가 긴급 급수 지원

✎ 최병근 기자 | ㉠ 승인 2024.05.23



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는 도내 영농기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농가에 긴급 급수 지원을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.

올해 5월 제주도 평균강수량은 8.2mm로 전년 22.5mm의 36% 수준에 그쳤고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 연속 무강우가 지속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. 특히 비닐하우스 재배가 집중된 지역에 두드러지는 실정이다.

한국농어촌공사는 농작물 피해 우려 농가에 급수차량을 지원하고, 선제 대응을 위해 대책지원반을 가동 중이다. 또 관내 저수지와 관정 등 시설물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물 부족 단계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.

김동철 제주지역본부장은 “한국농어촌공사는 급수지원에 필요한 물차, 양수기 등 보유장비를 적극 활용해 지원하고, 심각단계에는 지자체, 긴급동원업체 등 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할 계획”이라며 “아직 초기단계이지만 물 부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, 지하수 전문기관으로서 영농기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용 공공관정 정비와 기술지원을 실시하겠다”고 말했다.



최병근 기자 whiteworld84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